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반역한 압살롬을 상대로 강하게 제압하지 않고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의 결과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므이가 따라오며 다윗과 그 일행을 저주할 때에도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삼하16:11)."

이 후에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큰 상수리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요압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하였지만 자신을 반역한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오는 신하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마냥 슬퍼하기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는 길에 다윗은 서로 다른 3명을 만나는데 하나는 자신을 따라오며 저주하였던 시므이였고 다른 하나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신해 있을 때 자신을 공궤한 바르실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명 중 나머지 사람은 므비보셋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로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모가 므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여 마길의 집에 있던 므비보셋을 다윗의 왕궁으로 불러 친아들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을 때 그의 종이었던 시바의 모함으로 인해 다윗이 므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므비보셋이 내려와 피신하였다가 돌아오는 다윗 왕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24절은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만나 므비보셋에 대해 전한 말과는 차이가 나는 행색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의 행색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감지한 다윗이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므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므비보셋은 다윗이 들었던 것과는 다른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므비보셋은 다윗 왕을 따라 나서려고 하였지만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말렸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섣불리 따라 나섰다가는 도리어 다윗 왕에게 짐만 될 것이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제 추측입니다. 므비보셋은 하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 몸을 단장하지 않고 다윗 왕이 무사히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 시바가 자신을 모함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오직 다윗 왕이 돌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피신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있는 마루턱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므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므비보셋의 안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 때 시바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삼하16:3)." 시바가 말하기를 므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나라는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 즉 사울의 자손들의 나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왕권이 사울의 자손인 므비보셋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시바의 이 말은 분명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바는 자신의 주인인 므비보셋에게는 다윗 왕에게 피해를 입힐지도 모르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서는 이제 다윗을 만났을 때에는 자신의 주인이 다윗을 배반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므비보셋을 모함하는 이야기이고 다윗과 므비보셋의 관계도 갈라놓는 이간질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시바의 이 거짓말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므비보셋의 소유를 시바에게 모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바의 이러한 거짓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므비보셋을 직접 만나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므비보셋의 진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시 므비보셋의 소유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 왕과의 사이에서 중대한 오해를 받게 된 므비보셋이 다윗 왕을 다시 만났을 때 오해를 풀게 된 것은 므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바의 모함으로 곤란한 지경에 있다가 오해를 푼 므비보셋이 다윗 왕을 대하는 자세를 한 번 보기를 원합니다.

므비보셋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19:26)." 하지만 므비보셋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종인 시바가 자신을 속인 일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19:26b-27a)."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그대로 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5절 말씀에는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하였고, 로마서 14장12절에도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행한 일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므비보셋이 다윗 왕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 다닌 기억은 지워버리고 깊은 우정을 나눈 요나단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남은 아들인 므비보셋을 거두었습니다. 므비보셋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므비보셋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다윗 왕의 선대를 다시 떠올리며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요8:4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모두 죄 아래에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롬5:12).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아직 죄인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롬5:8).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므비보셋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므비보셋은 자신이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했었던 일이나 자신의 종 시바가 자신을 속여서 따라 갈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다윗 왕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지마는 이 모든 일들이 있었다고 해도 자신의 공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이 내세울 수 있는 공의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

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3장2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자랑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믿음 조차도 우리의 공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롬4:2).

이제 므비보셋은 오직 다윗 왕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처분의 모든 권한이 다윗 왕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윗 왕이 내리는 처분에 그대로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그 분의 심판도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벧전2:23).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분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심판의 능력과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신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므비보셋에게 그의 소유를 시바에게서 가져다가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므비보셋은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에 평안히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그 재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30절)."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5절에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와 같은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므비보셋의 자세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므비보셋과 같은 자세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마치 당연한 것을 받듯이 요구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나를 용서해야 한다'는 자세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며 우리는 그저 그 분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일 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분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죄인 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